

TRANS- HUMANITIES

Title : 좌절과 모색의 경계: 개화 지식인 의전(宜田) 육용정(陸用鼎)의
인물전 연구

**Between Frustration and Grope: Study of the Biographical
Writings of Uijeon Yuk Yong-jeong**

Author(s) : 조혜란 (CHO Haera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4 No. 3 (2011), pp. 35-66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c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좌절과 모색의 경계

- 개화 지식인 의전(宜田) 육용정(陸用鼎)의 인물전 연구

조혜란

1. 서론

의전 육용정(1843-1917)은 충청도 청산현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반에 속하였으며, 조상 중에도 유학으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은 찾기 어렵다. 그의 아버지 육병규(陸炳圭) 역시 학자나 문인의 면모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그의 집안은 유자로서의 가학(家學)의 전통은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육용정의 학문은 어머니의 친정 종제(從弟)인 이병선(李秉善)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병선은 성리학만이 아니라 천문학, 수학, 의학 등의 학문에 대한 저술도 남겼다. 또 육용정은 당대의 저명한 성리학자 임헌회(任憲晦)에게서도 수학할 기회를 얻었으며, 또 금예(錦藝) 박선생(朴先生)¹⁾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나 주된 영향은 25년 동

조혜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 1) 이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나 육용정의 문집의 관련 글들에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안이나 가르침을 받은 이병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육용정은 이병선의 영향과 더불어 다양한 서적을 통해 당대 서양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²⁾

1894년 무렵 서울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줄곧 충청도 청산현에서 살았던 육용정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 귀양을 오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육용정의 아들인 육종윤(陸鍾允)³⁾이 김윤식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육용정의 저술들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다. 김윤식은 육용정의 『의전기술(宜田記述)』에 서문을 써 주었고, 그 지식의 박식함을 칭찬하였다고 한다(민회수 110). 육용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의전기술』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개화 지식인과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중심으로 한 사학계의 연구⁴⁾가 기존 연구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의전기술』은 19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의 개화론으로서는 드물게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저서로 평가받는 저술이다(124). 그런데 육용정은 『의전기술』 외에도 다수의 시와 문들을 남겼고, 스스로 그 글들을 모아 『의전문고(宜田文庫)』로 편찬하였다. 그의 문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략하여 문학 쪽에서의 초기 연구는 꿈에 대한 그의 저술과 가전(假傳)을 중심으로 허구에 대한 육용정의 인식을 살피는 것이었다(신재홍 405-429; 김경미 120-122). 그 후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꿈에 대한 유자(儒者)의 태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려는 논의가 시도되었다(하지영 391-422). 최근에 들어서는

2) 육용정의 집안 내력과 스승 및 학문에 대해서는 백승중. 「〈의전기술〉을 통해서 본 육용정의 개화사상」. 『동아연구』18 (1989): 43-50; 민회수. 「1880년대 육용정의 현실인식과 동도서기론」. 『한국사론』48 (2002): 114-117.

3) 육종윤은 원래 육용정의 아우 육용필(陸用弼)의 아들이었는데, 육용정에게 아들이 없자 육종윤을 입후하였다. 육용정은 이 아들을 인연으로 1894년 이후 서울로 거처를 옮겼고 서오능 참봉 등의 한미한 벼슬을 하기도 하였다.

4) 백승중의 연구는 육용정의 가계 및 『의전기술』에 나타난 개화론의 전반적 성격을 살피는 데 주력하였고, 민회수의 연구는 육용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면서 그의 동도서기론과 현실인식의 상관성 및 동도, 서도에 대한 태도 등을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육용정의 인물전 중 <군인처모소사전(軍人妻某召史傳)>의 해석에 대한 논의 및 그의 시문(詩文)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육용정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김수연 69-97; 조혜란 33-59; 황재문 33-64).⁵⁾ 현재 남아 있는 육용정의 문집은 『의전기술』과 『의전문고』를 합해야 한 질이 완성되며, 전자를 통해서만 개화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볼 수 있고, 후자를 통해서만 좌절된 재야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육용정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는 오히려 후자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고는 특히 그 중에서도 그가 당대 인물을 입전한 5편의 전(傳)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육용정의 인물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자들도 언급한 바⁶⁾가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물전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이래 유가들의 대표적 글쓰기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장르이다. 육용정과 동시대의 개화론자들이나 위정척사파에 속하는 이들에 의해서도 인물전은 계속 쓰이는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신작구소설, 신소설 같은 새로운 장르적 모색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문학적 스펙트럼 속에 지방의 개화 지식인 육용정의 전 문학도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과연 육용정 전 문학이 지니는 독특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당대 문학의 맥락에서 그의 전 작품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그의 전 작품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III장에서는 그 특징을 추출할 것이며, IV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당대 문학에서 그의 전 작품들이 지니는 함의

5) 김수연, 조혜란은 <군인처모소사전(軍人妻某召史傳)>의 해석에 대하여, 황재문은 육용정의 시 작품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6) 신재홍도 하층인물을 입전한 육용정의 전 문학이 연암, 이육, 김려의 한문단편의 흐름을 이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조혜란도 육용정 전 문학의 개성적 면모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전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허구론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잠시 언급하는 데 그쳤으며 후자는 <군인처모소사전>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비교 자료로 언급한 것이다(신재홍 414; 조혜란 38-40).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의전선생문집 일(宜田先生文集 一)』⁷⁾ 권지이(卷之二) 전(傳) 항목에 들어 있는 5개의 전 작품들이다.

2. 육용정 전 문학의 내용

육용정은 ‘전(傳)’이라는 항목 하에 모두 다섯 편의 인물전을 남겼다. 다섯 편의 제목을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군인처모소사전(軍人妻某召史傳)〉, 〈송소합전(宋蘇合傳)〉, 〈개자이석주전(丐者李錫周傳)〉, 〈도자김동간전(刀者金同干傳)〉, 〈이성선전(李聖先傳)〉이 그것이다.⁸⁾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아직 육용정 인물전의 전모가 소개된 적이 없기에 이 장에서는 일단 그의 전 작품들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각 작품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전(傳)은 정통 한문 문체의 하나로, 많은 문사들이 유교적 이념에 따른 포품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문집에 전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전을 기술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는데 대개 전은 입전 인물의 조상 및 사람됨을 기록하는 도입부와, 대상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는 본문 그리고 입전 대상의 행적에 대한 기록자의 평가를 서술하는 평결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도입부, 행적, 평결은 인물전을 구성하는 보편적 항목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육용정의 인물전을 고찰하기 위해 본고 역시 도입부, 행적, 평결이라는 전의 보편적 잣대를 기준으로 전 작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같은 보편적 잣대를 기준으로 육용정의 다섯

7) 육용정. 『의전선생문집 1』. 경인문화사, 1993. 본고에서 육용정의 작품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책과 쪽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각주 인용할 것이다.

8) 권지이 잡저(雜著) 항목에도 네 편의 전 작품이 들어 있으나 이 작품들은 인물전이 아니고 허구적 개념을 의인화의 기법으로 다룬 가전(假傳)들이다. 그러므로 인물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논의와는 그 성격이 달라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 작품들을 검토하면 일단 육용정 인물전이 전의 보편적 형식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또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고찰은 육용정 인물전의 형식과 내용을 살피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육용정의 인물전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군인처모소사전(軍人妻某召史傳)〉⁹⁾

(1) 입전 인물

〈군인처모소사전〉은 육용정이 전해들은 여성 인물에 대해 입전한 것인데, 그녀의 성명은 모른다고 하였다. 소사(召史)라고 한 것을 보면 그녀는 중인 신분이며, 서울에 거주하였고 그녀의 남편 또한 서울의 별기군이였다. 나이는 30세쯤 되었는데 위엄 있는 몸매, 단정한 얼굴, 정채 어린 눈, 풍채 있는 태도 등을 지녔고 얼음과 눈 같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위기의 여성이었다¹⁰⁾고 서술되어 있다.

(2) 행적

전에서 입전 대상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는 부분은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인물의 인생 중 포폄할 만한 일화들을 비계기적으로 열거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군인처모소사전〉의 소사는 동학도를 토벌하기 위한 관군으로 나주에서 죽음을 당한 남편의 시신을 반장(返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나주까지 갔으나 그 남편의 비리를 발견한 순간 고향에 묻힐 면목이 없다고 판단, 반장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도로 묻고는 곡하고 돌

9) 육용정. 〈군인처모소사전(軍人妻某召史傳)〉. 『의전선생문집 1』, 1993. 140-143. 각 작품마다 제목에 달린 각주를 통해 해당 작품의 원문 쪽수를 제시할 것으로 II장에서 인용되는 원문은 매 인용마다 쪽수를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10) “召史夫本京別技軍也. 召史亦京人也. 時召史年可三十餘歲, 偉軀幹顏貌亦嫩嫵. 然其爲人, 眼有精彩, 風姿爽冷, 如冰雪人, 不敢近焉.”

아갔다는 일화¹¹⁾이다. 이 소사에 대한 행적은 반장 시도 및 포기가 전 부인데, 이는 그가 들은 내용을 입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내용을 고부 어씨라는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들을 당시에는 자세히 물어볼 겨를이 없었고 어씨 또한 청주 병영에서 죽는 바람에 소사 및 소사 남편의 성명도 물어볼 곳이 없어졌다¹²⁾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3) 평결

전형적인 전 작품들은 대개 '사씨왈(史氏曰), 외사씨왈(外史氏曰)'과 같은 입전자의 평으로 마무리된다. 이 부분은 입전 인물에 대한 입전자의 총체적 평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대개는 포상하고 싶은 인물을 입전하기에 찬(讚)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육용정의 전 작품들은 전형적인 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에 평결 부분이 분명하게 독립된 작품으로는 〈군인처모소사전〉이 유일하다.

〈군인처모소사전〉의 경우는 '의전자왈(宜田子曰)'로 시작하는 평결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육용정은 모소사가 남편에 대해 '친한 이의 잘못은 가려주어야 한다'는 유교적 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¹³⁾는 것을 논의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소사의 행위를 엄숙하고 신령한 '의(義)와 열(烈)'로 평가해 주고 있다. 육용정은 반장하러 갔

11) “召史聞夫死，將以返葬次 … 訪向湖南到羅州境。… 臨其夫所埋處，且哭且發其埋，啓而視之，則其死時未有檢斂，仍其衣只裹以一藁席掩埋者也。繼次解之，則所着上衣裏內當心處刺繡文完在。此即夫妻相離時所約以爲訪者，而卽召史之手字也。始乃快之其爲眞，遂大痛幾絕有頃乃醒，將改衣而細探尸軀，則腰係長狹帛帶一條，而其中多藏懷金銀輕寶。召史曰，“噫，吾始以爲夫也。今焉則非。身賤寧爲戰卒死於鋒鏑之下，死亦白其身而死是爲男子耳。兵事豈可以懷財爲此？必是非理之取也。”因嗟歎不已，曰，“是不可以返葬矣。何面入于故邱乎？”遂將所資衣，略改襲斂，而仍其處還封，一哭復盡哀而去焉云。”

12) “此事，余嘗聞諸魚高阜，而其時余以亂中倉遑未及詳問。又未幾高阜亦以非其所失，橫死於清州兵營，而更無可詳處。故召史姓亦不知，召史夫姓名亦不知，其爲誰何焉。”

13) “宜田子曰，義有爲親者諱之，義於爲親，雖有不義，亦有諱之之義焉。婦之於夫，亦當照用此義可也。”

다가 도로 묻고 온 모소사의 선택이 유항의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기량(杞梁)의 처(妻)와 안영 마부(晏嬰御者)의 처와 비슷하였고,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섭정(聶政)의 누이 섭앵(聶嬰)의 일보다도 낫다¹⁴⁾고 평가하고 있다.

2) <송소합전(宋蘇合傳)>¹⁵⁾

(1) 입전 인물

<송소합전>의 송소합은 자(字)가 군명(君明)이었다. 그는 한성부 즉 서울 구리가(九里街)¹⁶⁾에 있는 약방 주부가의 아들로, 신의를 중히 여겼고 술을 매우 좋아하였다. 육용정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이미 반이나 허영게 쉰 군명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¹⁷⁾

(2) 행적

<송소합전>에는 입전 인물의 다양한 일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송군명이 소합환약과 고약을 만들어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팔았는데, 그래서 ‘송소합’과 ‘고약’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일화¹⁸⁾, 그의 신의가 잘 알려져 있어 충청도와 경상도의 약재 시장에서 그의 약을 다투어 샀다는 일화¹⁹⁾, 잘 알지도 못하는 가게 주인이 귀한 약재와 돈을 쌓아둔 채 급한

14) “而千里而哭其夫，烈則烈矣。見非理而幡然不取，義則義矣。…是召史也，初似杞梁之妻，末似晏嬰御者之妻。易其地，則聶政妹之事，亦可優爲也。恨其無所訪問而姓名不傳焉。”

15) 육용정. <송소합전(宋蘇合傳)>. 『의전선생문집 1』, 1993. 144-149.

16) 구리가(九里街)는 현재 을지로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구리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며 조선시대에 약방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17) “宋蘇合君明者，本漢城府九里街藥契主簿家子弟也。嘗羈游湖嶺間，其爲人重信義，好飲酒，不知其始自何時，爲落南而其與余相對時，己爲半白首許矣。”

18) “蘇合方有名，湖嶺間，稱之蘇合者，蘇合不是其名。以其嘗造賣蘇合丸藥資生，故有云。又稱之膏藥，膏藥者腫藥也。亦以其嘗煮膏藥行賣，故有云。其在湖，人稱之宋蘇合，在嶺，人稱之宋膏藥，其實則蘇合膏藥即是宋君明一人也。”

19) “每當春秋藥令，則君明製蘇合膏藥二種，送賣于湖嶺兩令，蘇合膏藥城藥也。君

불 일이 생기자 그의 신의를 믿고 가게를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²⁰⁾, 술을 매우 좋아하는 호탕하고 시원한 가남아(佳男兒)라고 여겨 육용정이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뜻밖에 찾아온 거지 몰골의 남자가 송군명이었으며 그가 자청하여 서울에 올라간 육용정의 아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일화²¹⁾, 교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 여부인데 육치진²²⁾ 집노비인 김성일과 술벗이 되어 끝도 없이 술을 마셨고, 토하면 서로 냉수로 닦아주고 수염을 씻어 주며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마치 정남(情男) 정녀(情女)가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았다는 일화²³⁾, 그와 성일은 술친구로 마음이 잘 맞았는데 육용정은 그 둘이 나눈 대화를 보여준 후 ‘송군명은 크고 구속당하지 않는 호상한 기운을 지닌 인물이고 성일 또한 인걸이라고 인정했다’는 평가가 결든 일화²⁴⁾가 열거되어 있다.

〈송소합전〉의 전반부는 약재 상인으로서의 군명의 능력과 신의가 서술되어 있고, 육용정이 그를 만난 후에 해당하는 후반부에는 주로 술과 관련한 내용,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기질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

明之信義素著，故湖嶺兩令千萬人都會中人知此藥之出自宋君明手之所製，則舉令上皆不疑而爭買之，豈徒是也？人知此藥之爲宋君明所送賣，則卽爲其興成補助例而故買之。”

- 20) “有一大藥商素不與君明相親者，開肆于極熱擾地，重藥之如腦射膽黃各項唐材封左右，紛錯常平之未串未打數，散葉堆積于案前，而肆主方有急，將出外。適見君明至，呼君明使爲看守之。”
- 21) “人皆稱君明好酒…故雖於酒席，人愛慕之如此，而余每想聞其風彩，意以爲豪爽桂南兒也，願一見之矣。不意於某年月日，有客某與一巧者至，曰，“此卽君明也。”…時余家兒方在漢陽，半千里遠程，消息隔絕，己爲一周年矣。余甚憂悶之。君明見余此氣色，爲余請傳信。”
- 22) 육치진은 서울 마장리에 살던 육용정의 친척인데 송군명 또한 이 집에 왕래하게 되었으며 그러다가 그 집의 노비인 김성일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치진에 대해서는 육용정이 쓴 〈제난곡군치진문(祭蘭谷君致軫文)〉이라는 작품이 있다.
- 23) “致軫家奴子有金聖日者，亦善飲酒；…自是君明常日遊聖日家，聖日見君明至，每設酒相歡，亦善中君明意。…君明飲一杯則聖日亦飲一杯，聖日飲一杯則君明亦飲一杯，如是窮飲無終。竟聖日乃爲酒漲嘔吐之，則君明以冷水洗聖日面，親爲拂拭其鬚，俄而君明嘔吐，聖日亦如之，其互相愛護，如情男情女之相爲扶持焉。”
- 24) “余聞此言，乃以爲今而後快知，君明之爲磊落不拘豪爽佳男兒也，而彼聖日，亦人傑也哉。”

다. 송군명 스스로 거지와 종의 만남으로 규정한 김성일과의 교유 관계는 애뜻하기가 연인 같았다고 하였다. 그때까지 송군명의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신 김성일과의 관계가 비중 있게 등장한다. 그 몇 년 뒤 송군명은 술로 인해 충청남도 공주 남석교 변에서 죽었고 김성일도 늙고 병들어 죽었다는 언급이 덧붙여 있는데, 육용정은 그를 ‘주중협(酒中俠)’으로 일컫고 있다.

(3) 평결

〈송소합전〉은 평결 부분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대신 마지막 부분이 이르러서야 송군명의 가족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송소합은 결국 술로 인해 죽었는데(果爲中酒死), 육용정은 그를 ‘주중협(酒中俠)’이라고 하여 그의 협기를 기린 후 가족 얘기를 덧붙인다. 세상에서는 그가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하고 혹자는 아내를 얻어 아들 하나를 두어 지금은 장성했는데 그가 모두 버리고 취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춘 것이라고도 하였다. 혹자의 전언은 십여 년 전쯤 공주 약재 시장에서 아들을 만났고 아들이 군명을 위해 옷 한 벌을 지어 왔으며 서로 붙들고 통곡했는데 군명이 아들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을 했다는 내용²⁵⁾이다. 이 후 일담은 부분적으로 약재 상인이 아들을 만났다는 한문단편인 〈청취우약상득자(聽驟雨藥商得子)〉를 연상시키기도 한다.²⁶⁾ 그런데 이 내용은 포핍과는 거리가 멀어 평결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 마지

25) “世傳宋君明嘗娶妻一歡，而去之，或云，初不娶妻，又或云，君明娶妻有一子，今爲壯成，且其家財饒足，皆棄不取，晦迹至此。於十餘年前，公州藥命時，其子爲製君明衣一襲，訪其父而來，遇君明于客店，父子相扶痛哭，當夜君明復乘其子就睡，而潛逃脫去云。蓋是傷世之歡感得喪而絕情世，故託於酒而踈狂自遣者耶？其意亦可悲而且壯哉！”

26) 〈청취우약상득자(聽驟雨藥商得子)〉는 『청구야담』을 비롯하여 몇몇 조선 후기 한문단편설화집에 수록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던 이야기이다. 원래 이 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내용이 중요하나 〈송소합전〉에서는 후일담의 성격으로 삽입된다. 이는 마치 전기소설에서의 ‘부지소종(不知所終)’과 같은 기능인 셈이다.

막에서 육용정은 송군명이 상심하여 세상과 단절한 채 술에 의지하여 거칠고 미친 듯 그렇게 지낸 것이라며 그 뜻이 슬프고도 장하다²⁷⁾고 평가하였다.

3) <개자이석주전(丐者李錫周傳)>²⁸⁾

(1) 입전 인물

<개자 이석주전>의 이석주는 자가 운경(雲卿)으로, 서울 수포교에 사는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 이건은 수년 간 북경에서 사무역(私貿易)을 하여 거만금의 부자가 되었다.²⁹⁾ 그의 유년 시절의 환경은 매우 부유하였다.

(2) 행적

<개자 이석주전>에서는 이석주가 기질이 호상(豪爽)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즐겼는데, 수십 명 소년들과 반쯤 취한 채로 돌아다니자 아버지가 이를 기뻐했다는 일화³⁰⁾, 부친상에 천금을 써서 효성스럽다는 평을 들었다는 언급³¹⁾이 먼저 나온다. 장안의 유희, 떠돌며 향산(恒産)이 없는 자들과 어울렸으며, 값비싼 옷치레 및 추위에 떠는 거지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그 옷들을 다 벗어주었다는 일화³²⁾,

27) “蓋是傷世之歡感得喪而絕情世故 託於酒而踈狂自遺者耶 其意亦可悲而且壯哉”

28) 육용정. <개자이석주전(丐者李錫周傳)>. 『의전선생문집 1』, 1993. 149-153.

29) “李錫周字雲卿, 居漢城之水標橋. 其父建, 隨年貢使, 屢賈北京, 致巨萬.”

30) “建(필자 주 : 이석주의 아버지)無他子女, 既老得一錫周, 甚愛之. 嘗謂錫周曰, “財者, 將以用之也. 汝勿吝惜, 多施與, 做得天下好男子.” 錫周又豪爽, 喜飲酒, 脫落自娛. 一日, 錫周與數少年玉面, 半醉談談戲笑, 自外而入, 風姿仙仙. 其父啓齒曰, “吾死, 可以瞑目矣.””

31) “錫周值父喪, 用費千金. 人皆曰, “孝哉! 雲卿也.”

32) “雲卿既免喪, 洞開重門, 延納賓客, 自長安游俠, 及殿武監, 春政隸, 討捕軍校, 鍾路削丁, 潑皮, 凡浮浪無恒産之類, 莫不來投. 其中有一養漢的唱道, “某院妓雲心家, 新釀方出, 盍往游焉?” 雲卿聞之, 躍然喜曰, “可矣.” 乃改着服, 上下表裏絢緞衣, 唐射香觸鼻, 半月髻插珊瑚簪, 琥珀遠山, 其直七白金, 他件稱是. 過

술이면 관심 없던 부탁도 들어주었고, 만년의 별명이 ‘이탁주’였으며³³⁾, 절기마다 유령(劉伶)³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석주의 술에 대한 절학³⁵⁾, 자식도 없이 부인이 죽자 가산이 탕패했는데³⁶⁾ 예전에 그의 덕을 입은 자들은 한 명도 와보지 않았지만 슬픈 빛도 없이 훌훌 털고 작은 표주박을 매달고 동네에서 구걸을 하며 다니다가 문사 유차도를 만나 한 번 일갈을 했다는 일화³⁷⁾ 등이 열거된 후 작품이 끝난다. 그가 거지 행세로 살아간 것은 그의 말년에 해당하는 삶이라 하겠다. 이 작품 역시 사치스럽고 호방했던 젊은 날에 대한 일화들과 술에 대한 일화들이 비중 있게 다루지는데 이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은 그의 호방함과 협기(俠氣)이다.

(3) 평결

〈개자 이석주전〉 역시 따로 마련된 평결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석주가 유차도라는 문사를 만나 그와 다툰 후 친구를 맺었다는 마지막 일화는 인물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석주는 술을 만나면 술을 마시고 마음 편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 사람을 곧잘

明長衲衲，見一丐兒，寒不勝，盡脫與之，歸復一新如故。”

- 33) “雲卿初不肯之其人，飲之以酒至泥醉，則許之。其飲不計清濁，而又喜飲濁酒，故人稱之曰，“李濁酒。”濁酒者，蓋其晚年號也。”
- 34) 유령(劉伶) : 221?-300?. 서진 때 문인으로 죽림칠현 중 한 명이며, 대표 작품으로 술을 찬미한 〈주덕송(酒德頌)〉이 있다. 육용정에 의하면, 이석주는 유령을 ‘천고의 큰 성인[千古有大聖人]’으로 칭했다고 한다.
- 35) “嘗曰，“千古有大聖人，劉伶是也。… 每節日，具酒，祭劉伶，哭之慟曰，“嗚乎！自先生歿，世上濁酒空矣。不是酒空，乃飲者空也。不是飲空，乃知味者空也。以若小子之綿力，處此三空之中，縱能說道其醞醞醇醞，人皆聽之，以若辛醎酸。””
- 36) “旣而妻死，又無兒，家產蕩敗。” 이 바로 앞부분에서 육용정은 이석주의 부인을 등장시켜 ‘내가 아니면 오래지 않아 낭군은 굶어죽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부인의 발화를 서술해 놓고 있다.
- 37) “曾前所與往來賴德者，一不來顧然。… 未嘗有徵索於所負處，佩一小瓢子，乞食閭里，少無感容，意益磊落.” 유차도에 대한 일화는 주 38) 참조.

때렸는데, 문사 유차도가 거만하게 굴자 다투게 된 것이다. 이석주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자가 문인인데, 글로써 이름을 삼는 자는 허언뿐이고 실행이 없다면 꾸짖고 욕하였다. 다음날 유차도가 와서 문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다 듣고 난 이석주는 그의 문장은 인정해 주면서 술 몇 잔을 사주면 좋겠다고 청한다. 유차도가 너덧 잔 술을 마시게 하자 이석주는 불현듯 기뻐하면서 유차도에게 진실로 문장 선비라고 하더니 칭찬을 하며 친구를 맺고는 갔다³⁸⁾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부분은 평결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양반 문사에 대한 반감 혹은 비판적 언술, 술 몇 잔에 양반 문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석주의 모습은 세상사에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4) <도자김동간전(刀者金同干傳)>³⁹⁾

(1) 입전 인물

<도자 김동간전>의 김동간은 삼산의 마을에 사는 천민으로, 소를 해체하는 도축업을 하는 인물이다. 삼산은 충북 보은군의 옛 지명으로, 그는 아끼고 근면하게 일해 부유한 삶을 이룰 수 있었다.⁴⁰⁾ 육용정이 서술한 김동간은 백정이다. 그런데 육용정은 그 이름 앞에 ‘도자(屠者)’ 대신 ‘도

38) “遇酒，則飲之，遇不平，則善打人。遂轉顛到湖嶺間，與湖人柳次道者，相爭於稠人廣座中，因與爲一混作團。蓋柳次道者，文士也。於當場負才藝頗有倨傲色，故雲卿至有此舉。而雲卿因非毀文人曰，“大抵世間最可憎者，文人也。以文爲名者，都是只有虛言，全無實行，詆辱莫甚。”其翌日，次道來謝雲卿曰，“子何小視我輩文人之裨益世程，亦自不鮮唐虞之治？非我無以爲彰德孔孟之學，非我無以爲明理儀秦之辯，非我無以行其權變聶荊之俠，非我無以述其氣節。凡天下事，何莫不然？而以至事大交隣，戰伐獄訟，其關係爲何如哉？俄焉，刀劍斧鉞，忽復衮冕鍾鼎，皆出於我輩之手段造化也。子何小文，爲吾今積謗在身，子勿多言。”雲卿默然聽罷曰，“君於辭令，則可謂有之矣。然請，從君得飲幾杯酒，則好矣。”次道爲買四五鎰，使飲之，則雲卿乃渙然喜曰，“吾子次道，誠文章士也。”稱之不容口，遂與結友而去焉。”

39) 육용정. <도자김동간전(刀者金同干傳)>. 『의전선생문집 1』, 1993. 153-159.

40) “刀者金同干者，賤流也。居三山之邑，市屠販資生，旣身賤無他爲業，屠牛蓄財以自娛。”

자(刀者)라는 한자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 작품의 제목은 〈백정 김동간전〉보다는 〈칼잡이 김동간전〉의 어감에 가까운 명명이 되었다.

(2) 행적

〈도자 김동간전〉은 다섯 편의 전 중 분량이 가장 많은 작품이다. 그런데 사대부에 대한 욕용정 자신의 서술이 많고 김동간의 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도입부에는 그의 천한 신분, 소를 잡아 재산을 모으게 됐다는 소개와 더불어 약육강식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에서 낙향한 사대부들의 폐단에 대해 언급한다.⁴¹⁾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같은 군에 사는 양반이 김동간에게 와서 돈을 꾸는 일화이다. 김동간의 일화로는 유일한 것이기에 전문을 인용해 본다.

동간과 같은 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본군에서 대대로 산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하루는 와서 동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난하여 관아에서 빌린 것이 수백인데 갚을 수가 없네. 자네의 높은 의를 듣고 특별히 와서 번거롭게 하니 자네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나?” 하는데 그 말이 매우 비굴하였다. 동간이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혼잣말하기를, ‘양반이 백성을 괴롭히는 건 이제는 예사이다. 내 들으니 서울에서 온 모 양반이 지난번에 내 이웃 이침지를 불러 건장한 노비를 호령하여 침지의 상투를 몇 바퀴 휘두르게 하고 약소년을 만나 나무 몽둥이로 그 뒤를 밟아 종아리를 때리고 빨리 걷게 하였는데 마치 화난 말처럼 빨리 달렸는데도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두 무릎을

41) “刀者金同干者，賤流也。居三山之邑，市屠販資生，既身賤無他爲業，屠牛蓄財以自娛。一錢爭一分，一兩爭一錢，銖累寸積致富厚。時麗末，政亂王綱解紐，強食弱肉，上不爲禁。京都士大夫，多携家落鄉，公行武斷，小民無告顛連莫保。(밑줄 필자)” 원문에 의하면 시대 배경은 ‘時麗末’, 즉 고려 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행사하는 폐악의 종류나 정도는 박지원의 〈양반전〉을 연상시키기에 족하다. 즉 배경은 고려 말이지만 사건은 조선 후기 상황과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곡식 되는 말로 누르고 양 옆구리는 강도 잡는 몽둥이로 때려 약간의 재산을 그 자리에서 빼앗았지. 침지는 실로 잘못도 없이 가진 재산이 몸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에 족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같은 군에 사는 양반은 비록 시골의 선비이나 그 대대로 내려오는 덕이나 가문은 서울의 모 양반과 별로 우열이 없다. 만약 자기 집 사랑에서 손으로 '아' 자 유리창을 밀며 눈을 부릅떠 큰소리로 '너'로 나를 부른다면 나는 두려워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친히 내 집에 와서 나를 '자네'로 칭하니 이 양반을 저 서울의 모 양반에 비하면 가히 어진 사람이라 하겠고 내게는 도리어 존대가 이를 데 없다. 이로 보면 재산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또한 몸을 세울 수도 있다.' 하고 드디어 곧 허락하였다.

이에 다시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나 이 양반이 나를 '자네'로 칭하는 것은 나를 존대해서가 아니라 내 엽전 때문이다. 그러니 저 엽전 이 어찌 선한 보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후로 동간은 매번 엽전을 '자네'라고 칭하면서, "내가 '자네'가 아니라 내가 '자네'로구나." 하였다. 일찍이 소를 잡아 팔았는데 큰 궤를 두고 장차 궤에 엽전을 넣을 때에 손으로 엽전을 어루만지고 애무하며 장난하기를, "자네, 자네! 자네를 넣고 뽐 때 이목이 두려운데 자네가 이미 여기에 들어 오니 좋구나. 좋고 좋은 게 이 궤 안에 있네. 그대가 나갈 때, 나가는 것도 좋으나 나갈 때 번거롭게 소리 내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마라." 하였다. 옆에서 보는 자가 고꾸라지며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⁴²⁾

42) “同干同郡，有一兩班，卽本郡世居望族也。一日來謂同干曰，“我負官結數百，無可辨報。聞君高義特來煩君。君可垂惠否？”辭氣甚爲卑屈。同干聽罷，私語于心曰，“兩班之虐民，當今例也。吾聞有自京來的某班，向招吾近隣李僉知，叱健奴，使揮僉知髻數周，遭一惡少，以木椎躡其後，拍其踵，使之驟步，如怒馬馳突，猶爲未足，壓雙膝于量穀之斗衝，兩脅以治盜之槌。若干財產，當場奪取，僉知實無辜而其所所有財產，適足爲傷身之具焉。吾念，吾郡兩班雖是鄉措大，其世德闊闊，與京某班，別無優劣。若在自家舍廊，手推亞字琉璃廳，曠目厲聲，‘爾汝’，呼我，則我當慙伏無地，而矧今親臨我家，稱我以君，此兩班比諸京某班，則可謂仁人也，而於我反爲尊待無比矣。以此觀之，財不專爲傷身，亦可以發身。”遂立許與之。乃復曰，“雖然，此班之稱我以君，不是尊我，爲我孔方故也。然則，彼孔方，豈不爲善寶也哉！自後，同干每於孔方，以君稱之曰，“我非君也，爾是

박지원의 〈양반전〉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 일화는, 자신을 대우해주는 양반의 말에서 돈의 힘을 확인하는 김동간의 혼잣말과, 돈을 께에 넣거나 꺼낼 때마다 김동간이 취하는 태도가 길게 서술된다. 박지원의 〈양반전〉이 양반의 횡포 및 당대의 세태를 그리는 방식에 비하면 폭력성과 몰신성을 환기시키는 〈도자김동간전〉의 수사(修辭)는 매우 거칠고 노골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평결

김동간의 일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입전 인물의 행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평결로 보기도 어려운 내용이다. 그 내용은 바로 힘없는 백성의 불쌍한 처지이다. 양반들의 행태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라는 점에서 김동간의 일화와 문제의식은 상통한다고 하겠다. 미천하고 지각이 없어 문장이나 벼슬길은 바랄 바도 아니고 더운 여름날은 발두둑에서 추운 겨울날은 배 찌는 일로 약착같이 노력하지만 좋은 옷이나 음식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 살 도리를 찾아도 쌓아둔 것도 거의 없이 겨우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사대부들은 편히 지내면서 그나마 백성들에게서 취해간다⁴³⁾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관계를 매미와 쇠똥구리의 우화⁴⁴⁾로 비유한다. 이 비유는

君也。“嘗解牛賣之，置一巨櫃，將納孔方櫃中，以手撫孔方愛而戲之曰，“君乎！君乎！君之出納，耳目可畏。君既來此以好，好在好在於此櫃中。及君之出，出亦可好，出勿至煩擾有聲而傷人焉。”傍觀者無不絕倒而笑焉。”

43) “可哀哉！至可憐者，小民也。所處微賤且沒知覺，文學官達非渠所希，暑哇寒織，營營役役，好衣美食，非渠所得。終身服勞，專心治生，土糞瓦釜，所貯無幾，而以此爲僅延性命之具也。”

44) “士大夫乃安居逸游而有取於民，正如螻蛄之於蛄蟻也。螻蛄蟻屬也，蛄蟻路傍糞穢中轉丸虫也。諺傳螻蛄冬月乏食乞糧於蛄蟻。蛄蟻曰，“自力而食職也。子昔長夏盛炎，飲清露乘涼歌詠於芳樹綠陰中，安逸自樂，今當天地閉塞，萬虫蟄伏之時，乃有求於我耶？我之所蓄，牛糞耳。此豈適子？子於今日，此猶無之乎？我卽不避雨，腸手口拮据，團之推之，黽勉移來以納吾穴者也。伊時，子何曾一有閔恤我乎？”遂不與之。”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연상시키는데 힘없는 백성과 양반 사이의 역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 역시 김동간은 등장하지 않는 부분으로, 손님(客)과의 대화 장면이 이어진다. 이 부분은 ‘사대부들이 모범은 되지 못할지언정 함부로 못 살게 구는가?’라는 앞 단락의 비판에 이어, 필요하면 닥치는 대로 빼앗는 날도둑 같은 양반들의 행태, 수령이나 도백도 다 이 양반이나 토호들의 친인척이거나 대대로 교분이 두터운 자들이니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하는 손님의 한탄⁴⁵⁾으로 끝을 맺는다. 평결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돈을 꾸러 온 시골 양반과 서울에서 온 양반을 비교하는 김동간의 시선에 이어서 육용정 자신이 그 비판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성선전(李聖先傳)〉⁴⁶⁾

(1) 입전 인물

〈이성선전〉의 이성선은 성주(星州) 사람으로, 조상 중에는 성산군(星山君)으로 봉해진 이도 있다고 하니 양반의 후예였을 터이다. 그런데 음직(蔭職)으로 얻은 충훈도사 직분은 자신이 기겁지 않아 나아가지 않았고, 집이 가난하여 남의 집 고용살이로 살아갔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성품이 열렬하고 발랐으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하였고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⁴⁷⁾이다. 육용정의 어머니가 성주 이씨⁴⁸⁾였으므로, 성주 이씨인 이성선에 대한 입전 내용은 어느 정

45) “從容謂客曰，…武斷之禁，廟飭雖是截嚴，而邑守道伯，若非此班之姻婭族戚，則皆是此班父兄世交也，奈於此班何？”客嘿然聽罷曰，“此爲無告。雖以我當官，亦無奈何？奈之何？”

46) 육용정. 〈이성선전(李聖先傳)〉. 『의전선생문집 1』, 1993. 159-161.

47) “李聖先者，本星州人也。其先有以勳功，封星山君者焉。聖先亦嘗以蔭蒙 恩調忠勛都事，非其所樂，不就。性廉潔貞良，接人無親疎汎愛，而甚有信焉。家貧無以爲生業，自近年而來，來住于著縣之斗田里，爲人雇賃食其力，爲自保計。”

48) 육용정. 〈본생비성주이씨행략(本生妣星州李氏行略)〉. 『의전선생문집 1』, 1993. 182-193.

도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적

이성선은 아내가 죽은 뒤 다시 장가들지 않고 인간사를 지켜워했는데 동성에 취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성선이 사랑을 쏟아 부은 이웃 소년과의 일화이다. 그는 소년의 초례 전까지는 전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고 소년과 약속했는데 그 소년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혹 다른 사람과 자기도 했다. 성선은 크게 의심하고 질투하여 칼을 뽑아들기에 이르렀다⁴⁹⁾는 내용이다. 이 일화는 이성선과 그 소년의 동성 애적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육용정은 이성선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 소년이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⁵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한 조각 땅도 없지만 논의 작물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는 것이 안타까워 가뭄 때마다 자비(自費)로 기우제를 지내는 이성선의 일화⁵¹⁾가 소개되어 있다. 육용정은 이성선이 살던 전두리(田斗里)가 자신의 고향이어서 이성선에 대해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가 찾아와 한 번 만난 적도 있다⁵²⁾고 하였다.

(3) 평결

〈이성선전〉 역시 평결 부분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육용정 자신이 이성선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며 만난 적도 있다고

49) “妻死不再娶，厭薄人間事焉。然猶好爲風男之戲如宮人對食樣，且有妒性甚劇。嘗與一隣童，有歡鍾愛頗深。與厥童相約曰，“及爾未醮，願得一依勿渝。”此乃結約之限定也。其後厥童不省，有或與他人寢。聖先遂大生疑忌，至有拔劍作梗然。”

50) “聖先本仁慈人，其意豈專爲是刻害妄率己也？其疑忌作梗爲厥童之背約失信也。”

51) “每當年旱，則出若干雇錢，買甌豆米魚，自費奉獨山祭，至誠禱雨，禱輒有應，其用心嘉惠，每多在於人所，非望己所無益之處焉。人或譏之曰，“若無片土作農，而禱雨爲何乎？”則輒應之曰，“吾不忍見旱稼之孔樸與嗷嗷萬民心俱焚也。”

52) “其所住斗田里，爲余家枌榆故地，故余亦已熟聞聖先名。且聖先嘗亦一至余室，”

하여 자신의 입전 내용에 신빙성을 더하는데, 이 부분이 앞의 행적 부분과 구별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또한 포폄과는 거리가 있기에 평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육용정은 여기에서 키 작고 중인 같은 얼굴에 온화한 말, 맑은 눈동자와 전신에 난 누런빛의 가는 털 등 외형적 특징을 열거하면서 세상에서 기이한 재주를 품은 이인, 술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물의 특징은 대개 작품의 도입부에서 기술하는데 비해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맨 뒤에서 인물의 외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남곡(楠谷) 송상공(宋相公)도 만나보았다⁵³⁾는 첨언을 통해 자신의 입전 내용이 사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남곡 송상공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3. 육용정 전 문학의 특징

1) 기존 전 양식의 해체

육용정 인물전의 입전 대상 인물은 중인 여성, 유명한 약상이었다가 빌어먹게 된 사람, 매우 잘 살았다가 거지가 된 사람, 양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부유한 백정 그리고 동성에 취향의 고공(雇工) 등이다. 보다시피 하층 인물들인데, 과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가 하층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또 ‘술’을 매우 좋아했다는 언급이 많았으며 ‘신의’를 강조하여, 험기(俠氣)를 느끼게 하는 인물들이 많았다⁵⁴⁾. 이를 보면 육용정이 입전한 인물들은 충효열

53) “而觀其爲人，則體短小，面貌類中人，其言藹如也。但眸子澄明，全身髮極黃細如芒刺，恰有似乎世所稱抱奇才之異人術士狀。年今三十餘，而其老蒼，已如四五十許人矣。楠谷宋相公聞其名，亦嘗請邀一見云。”

54) 특히 술을 좋아하는 인물로는 송소합, 이석주가 있으며, 신의가 강조된 이로는 송소합, 이성선이 있다.

(忠孝烈) 등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혹은 무관한 인물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유교적 포상에 가장 가까운 평결을 붙인 〈군인처모소사전〉의 경우도 기존의 열녀전과는 거리가 있는 서술 태도를 보여준다.⁵⁵⁾

전형적인 전 작품을 기대한 독자들에게 육용정의 전 작품은 생경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그가 비단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물들을 입전해서만이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전의 전형적인 도입부, 행적부, 평결이라는 세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입부에서는 입전 인물의 가계(家系)나 해당 인물의 벼슬이나 훌륭한 자질들이 열거되는데 육용정 인물전의 입전인물들은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각 작품의 도입부 역시 매우 소략하며 정보도 구체적이지 않다. 또 입전 인물의 일화들을 적는 행적부에서도 입전 인물의 행적만이 아니라 갑자기 곤충이 등장하는 우화(寓話)가 삽입되거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한다. 게다가 입전 인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평결 부분은 인물전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물전에서는 평결 부분이 생략되거나 혹은 작가의 가치평가가 곁들여지는 일화들이 강화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전 양식을 해체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전들은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변화와 파괴를 보여준다. 게다가 입전 인물들의 일화는 낮설고도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⁵⁶⁾

그렇다면 이렇게 전의 전형적 인물 선택 범주에서 벗어난 입전은 육

55) 〈군인처모소사전〉의 포핍, 이 작품에 나타난 열과 여성 인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혜란, 「육용정의 〈군인처모소사전〉을 읽는 한 가지 방식」, 『한국문화연구』1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0, 46-56.

56) 육용정의 문학을 연구한 기존 연구자들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에 대한 인상적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육용정 전이 갖는 이 같은 특징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언급에 대해서는 각주6) 참조.

용정의 의도적 선택이었을지 여부가 궁금하다. 만약 이것이 육용정 전 문학에서만 드러나는 인물 기술이라면 이는 그의 입전 의식과 유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육용정의 다른 작품을 통해 인물 기술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인물에 대한 육용정의 기록으로는 제문, 행장, 묘지명 등이 있으므로 우선 이 작품들을 보도록 한다. 육용정은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묘지명과 제문을 남겼는데, 족대부(族大夫)⁵⁷ 육대진(陸大鎭)에 대한 기록인 〈수분외육공묘지명(守分窩陸公墓誌銘)〉, 족대부 육상지(陸相贄)에 대한 기록인 〈은천자육공묘지명(隱川子陸公墓誌銘)〉, 육상지에게 입후된 육병이(陸炳堯)에 대한 기록인 〈행외육공묘지명(杏窩陸公墓誌銘)〉, 고모 및 누이에 대한 기록인 〈제고모유인능성구씨부문(祭姑母孺人綾城具氏婦文)〉, 〈제자씨유인완산이씨부문(祭姊氏孺人完山李氏婦文)〉 등⁵⁸이 그것이다. 〈수분외육공묘지명〉에서는 사람들이 시골의 포의(布衣)였던 그를 칭송하는 분위기를 먼저 서술하고 후에 족조부 육대진이 책을 두루 보았고, 재주와 학식이 넉넉했으며 효성스러웠고 베풀기를 좋아했다는 덕목 등이 열거되어 있다. 육상지의 묘지명인 〈은천자육공묘지명〉에서도 역시 은천자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행실을 다스렸으며 기억력이 좋았고 효성스러웠으며 육씨 집안을 일으키는 데 공이 있었음을 기록하였으며, 〈행외육공묘지명〉에도 육병이가 책을 좋아하는 군자였고 성품이 겸손하고 삼갔으며 날마다 의관정제하고 새벽에 가묘에 인사한 후 책을 읽었는데 6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였다. 고모에 대한 제문이나 누이에 대한 제문에서도 그녀들의 온화한 성품과 행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묘지명

57) 할아버지뻘 되는 같은 성의 먼 친척을 가리킨다.

58) 육용정은 〈묘지명〉 4편, 〈행장〉 2편, 〈제문〉 12편을 남겼는데, 이 작품들은 『의전선생문집 1』 권지이에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육용정, 『의전선생문집 1』. 경인문화사, 1993. 162-219. 그 중 〈수분외육공묘지명〉 162-167; 〈은천자육공묘지명〉 167-171; 〈행외육공묘지명(杏窩陸公墓誌銘)〉 171-173; 〈제고모유인능성구씨부문〉 207-208; 〈제자씨유인완산이씨부문〉 209-213.

과 제문의 내용을 보면, 모두 당대의 이념이었던 유교의 가치 규범들에 부합하는 장점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렇게 일탈적이거나 충격적인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인들에게 주는 시문들이나 위의 예들처럼 친족들에 대한 글을 쓸 때에는 아무래도 동질성이 강조되며 표현이 조심스러워질 것이 당연하다. 이에 비해 전문(傳聞)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작가와 거리가 먼 인물을 입전한 전문학은 대상 인물 선정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아버지에 대한 행장은 조선시대 아들이 아버지를 기리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본생고백련부군행략(本生考白蓮府君行略)>⁵⁹⁾에서 육용정은 아버지가 자신이 7살 때 돌아가셔서 이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 아버지에 대해 추억한다. 그의 아버지는 기의(氣義)를 숭상하고 통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독서는 즐겨하지 않았으며 ‘대장부는 마땅히 후인들이 자기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찌 고인의 진적을 외우겠느냐고 하였다. 또 ‘과거 시험은 애들 놀이이니 뜻 높은 자가 기웃거릴 데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뜻과 세상이 맞지 않아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구 술을 마시고 손님을 모아 날마다 술 마시면서 스스로를 방기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호걸’이라 칭하였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 아버지는 심화(心火)가 목구멍에 걸려 39세에 죽고 말았는데, 일종의 화병일 것으로 보인다. 육용정은, 나중에 보니 아버지가 남긴 초고들이 있었는데 종이 가 낡고 글자가 빠져 자세하지 않은데다가 불까지 나서 그나마 없어졌다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에 대해 썼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다’든지 ‘술에 취해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든지 하는 것은 조선시대 선고행장(先考行狀)⁶⁰⁾에서는 흔히 보기 드문 표현인데, 그는 아버지를 불우한 일사

59) 육용정. 『의전선생문집 1』. 경인문화사, 1993. 178-182.

60) 행장이 제문이나 묘지명에 비해 형식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육용정의 경우처럼 아버지에 대한 행장에서 굳이 유자로서의 수선에 결격이

(逸士)나 이인(異人)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교적 포폄의 범주를 넘어선 서술은 인물전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문, 묘지명, 행장 등은 죽은 이를 기리는 성격의 글이어서 규범적으로 칭송 받을 만한 내용에 집중해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소 육용정은 한문과 유교 그리고 동도(東道)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화론자였으므로(민회수 140, 143), 제문이나 묘지문, 행장 등에 나타난 언술이 평소 그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것은 결코 아니라 하겠다. 다만 육용정이 아버지의 행장에서 보여주는 몇몇 서술들은 규범과 일탈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육용정 전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술과 신의의 문제 혹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기존 질서를 초탈해 버린 주변인의 모습 등은 작가가 아버지에게 대해 가지고 있던 흐릿한 기억의 편린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용정이 입전한 인물들의 일화나 삶에 대한 태도는 세인들의 시뻐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육용정은 그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입장에 서거나 혹은 가치중립적인 시선으로 그려낼 뿐이다. 묘지명, 제문 등을 참고해 봤을 때 육용정 역시 매우 온건한 가치를 준수했을 것 같은데 일탈적인 주변인들의 행적에 대해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육용정이 전을 쓰면서 다섯 명 모두를 그 같은 인물들만 입전했다는 것은 작가가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라 하겠다.⁶¹⁾

2) 노골화된 표현과 통속적 조야미의 발현

인물전은 유교적이며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장르이다. 그런데 육용전

될 만한 내용들을 아버지 행장 내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61) 인물전에 나타난 작가의 입전 의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Ⅲ.3에서 논하기로 한다.

의 전에서는 대개의 전 문학에서는 보기 드문 통속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육용정 전 문학의 이런 분위기는 주로 술, 돈, 성적 취향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 요소들이 각 경우마다 극한의 선까지 가는 설정들을 보여주는 데서 발현된다.

우선 인물을 설명하는 요소로 술이 많이 등장한다. 술에 대한 기호는 남성 인물의 호방함을 나타낼 때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낭만적 기질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⁶²⁾ 그런데 육용정 인물전에서의 호음(好飲)은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거나 아니면 술이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는 등 보다 과격한 일화들로 전개된다. 〈송소합전〉에서는 두 남성 인물들이 토할 때까지 마시고 애뜻하게 서로의 토사물을 씻어 주는 데까지 이르고 만다. 이는 유교의 수평적 가치인 붕우유신(朋友有信), 신의(信義)를 기리기 위한 일화로 동원된 것인데, 하필 토사물 이어서 불쾌의 미감을 형성한다.

또 ‘돈’ 혹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여기저기에 내장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입전자의 관심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당대인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모소사가 반장을 포기한 것은 그 남편이 받은 뇌물 때문이었고, 충청도와 경상도 약령시에서 인기가 높았을 두 약의 제조자인 송소합의 일화는 그가 모았을 부(富)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인물이 거지가 되어 작가 앞에 나타난 것 역시 물질의 상실과 관련한 일련의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가 하면 이성선의 경우 역시 대개는 아끼고 축적해야 할 대상인 돈이나 물건을 어떻게 선물하고 또 어떻게 탕진했는가 하는 일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뇌물, 부의 축적 및 파산 등은 당대의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 가능한 요소들이다. 육용정 전이 보여주는 ‘돈’에 대한 관심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즉 그 욕망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형태인 ‘부’나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다 물화(物化)된

62) 술이 그 인물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경우로는 주선(酒仙)이라 할 수 있는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 701-762)을 들 수 있다.

상태인 ‘돈’에 대한 찬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백정 김동간은 엽전, 즉 돈을 인격화하여 ‘자네’로 칭하고 돈궤에 든 엽전의 질감, 그 손끝에서의 촉감을 느끼면서 행복해 하는 것이다. 신분을 돈으로 사고파는 〈양반전〉의 문제의식은 이보다 훨씬 예각화되어 있으나 수사(修辭)의 층위는 〈도자 김동간전〉이 더 노골적이라 하겠다.

또 육용정은 입전 대상 인물의 동성애와 폭력성을 기록했다. 특히 〈이성선전〉은 강렬하면서도 통속적이다. 이성선은 어떤 소년과 배타적 관계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 소년이 약속을 어기자 칼부림을 한 것이다. ‘소위 비정상’ 범주에 속하는 성적 취향과 폭력의 결합은 오늘날에도 비주류 정서로 분류된다. 그런데 육용정은 그것을 입전 대상 인물의 일화로 소개하고 있다. 동성애는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소재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황현(黃玗)의 『매천야록』 1권을 보면 황현은 당대의 정치적 실세였던 김병국(金炳國)과 민규호(閔奎鎬)를 동성애 관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동성애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임경주(任敬周)의 〈매죽당이씨전(梅竹堂李氏傳)〉과 고전소설 〈방한립전〉⁶³⁾ 역시 여성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그리고 있다. 육용정은 〈이성선전〉의 이성선만이 아니라 〈송소합전〉의 송소합도 지기(知己)인 김성일과 ‘정남정녀’ 같은 관계였다고 하였다. 이 같은 서술은 입전 인물의 주변성과 인간됨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면서 또 생경하면 서도 통속적인 미감을 발생시킨다.

이 같은 육용정 전 문학이 환기시키는 미감은 조야미에 가깝다고 하겠다. 주지하듯 미감(an esthetic sense)은 미(beauty)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개념이 아니다. 미적 개념에는 미뿐 아니라 추도 포함되며, 그러하기에 조야함 역시 미적 범주가 될 수 있다.⁶⁴⁾ 육용정의 전은 과

63) 김경미는 〈매죽당이씨전〉나 〈방한립전〉을 동성애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189-216).

64) 미감, 미적 개념, 조야미에 대해서는 김주현, 「1장 미와 미적인 것들의 차이」.

음으로 인한 토사물, 돈에 대한 찬미,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성적 취향 등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들을 굳이 꺼내어 독자들의 눈앞에 전시한다. 물론 작가는 이를 통해 인물의 신의를 기리고, 양반의 횡포를 고발하고 그 사회의 중심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입전 인물들의 성향을 그려내기도 한다. 그런데 평결부를 통해 작가의 가치 판단을 명확하게 언술하지 않는 육용정 전 문학의 특징으로 인해 이 같은 일화들은 작품의 통속적 미감, 조아함 등을 강하게 환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일탈적이고 주변화된 인물들에 대한 관심

육용정의 인물전들은 문집에 들어 있는 그의 시문들과도 또 묘지명이나 행장들과도 다른 미감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그의 전들은 평결 부분이 생략된 작품이 많아 여타의 전들처럼 입전자의 입전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육용정은 입전 인물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왜 그런 인물전들을 쓰게 된 것인지, 그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입전 인물들이 하층민들이어서 가계(家系)나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입전 인물도 가족에 대해 연연해하거나 혹은 다른 맥락에서라도 가족에 대한 진지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모소사에게는 남편 반장보다는 공적 가치가 우선하고, 김동간의 경우⁶⁵⁾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송소함은 가족 관계가 불분명하고, 이석주, 이성선은 첫 부인을 사별한 후 다시 혼인하지 않고⁶⁶⁾ 유랑생활을 한다. 인간사(人間事)의 가장 큰 사건인 조선시대의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책세상, 2009. 43-47.

65) 이 경우는 오히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 확률이 높아 보인다.

66) 이성선은 부인과 사별한 후 '인간사가 지겨워(厭薄人間事)' 재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혼인은 대를 잇고자 하는 의무이자 욕망이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가족을 이루는 것이나 본래 위치했던 사회경제적 처지의 유지나 상승에 연연하지 않으며, 기꺼이 방외(方外)에 처해 주변인으로 사는 것으로 그려진다. 작가는 이를 입전 인물의 불기(不羈)함으로 받아들인다.

입전 인물들은 유교적 이념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한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부녀자임에도 모소사는 친족 윤리가 아닌 공적 윤리의 주체가 되고자 했고, 송소합은 술을 마시고 통이 커지면서(胸中渾浩), 스스로를 ‘욕망과 영욕에 골몰하는 세상 사람들[世人之汨於嗜欲榮辱]’과 구별하였다. 이석주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없는 문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지닌 인물이었고, 이성선은 산제(山祭)를 통해 소유의 한계를 넘어선 불인지심(不忍之心)을 실천하였다. 그 결과 육용정은 그들을 ‘주중협(酒中俠), 호상가남아(豪爽佳男兒), 인결(人傑), 이인(異人), 술사(術士)’ 등으로 칭하는데, 크게는 협(俠)으로 범주화될 수 있겠다.

그런데 입전 인물들에 대한 육용정 자신의 평가적 시선도 드러난다. 그는 거지꼴로 온 송소합을 보고 실망한다. 그랬다가 “사람들이 칭찬한 것은 대개 신의였으니 겉모습에 있는 것은 아니다(人之所稱, 蓋以其信義, 不在於貌也)”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대목이 나온다. 결국 그는 ‘사람이란 처지의 귀하고 천한 것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大抵, 人物不以地之貴賤爲有無焉]’라고 하면서, 상심한 세상에서 스스로 세상과 단절한 송소합을 향해 ‘그 뜻이 슬프고도 장하다[其意亦可悲而且壯哉]’라고 토로한다. <도자김동간전>에서 육용정은 ‘가여운 자는 백성’이라면 슬퍼하고[可哀哉! 至可憐者, 小民也], 양반과 백성의 관계는 매미와 쇠똥구리의 관계보다 못하다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후환을 두려워 할 것 없는 쇠똥구리는 매미의 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양반의 후환이 두려운 백성은 열악한 형편에서도 양반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성선전>에서는 이성선을 ‘세상에서 기이한 재주를 품었다고 하

는 이인, 술사와 유사[恰有似乎世所稱抱奇才之異人術士狀]한 존재로 파악하였다. 즉 육용정은 인물의 일탈적 일화들을 기록했지만 이는 그 인물을 향한 수용과 공감의 자장 안에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물전의 언급 중에서 작가와 가장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는 〈도자김동간전〉의 손님(客)을 들 수 있다. 작품 마지막에서 대화를 나누던 이들이 서울 양반의 폐해를 열거한 후 그러나 읍의 수령과 도백이 그 양반의 친인척이거나 그 부형과 대대로 교분이 있어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손님도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비록 자신이 관직을 맡더라도 별 수 없을 것[此爲無告. 雖以我當官, 亦無奈何? 奈之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작품은 끝난다. 내지하(奈之何).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손님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는 당대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하는 것이기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노출한다.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막강하게 느껴지는 권력에 자신 같은 이는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기에 미리 체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전을 쓸 때의 육용정의 입장이었다.

4. 결론 : 개화 지식인의 대안적 모색

육용정 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좌절을 경험한 인물들인데, 이 좌절은 육용정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고 육용정 개인의 것이기도 하다. 입전한 인물들이 육용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입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좌절과 더불어 중심에 속하지 못하는 주변 정서가 공통분모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확인했듯 작가의 아버지는 큰 뜻을 품었지만 좌절되었고 불우(不遇)로 인해 자신의 기를 이기

지 못한 결과가 병이 되어 죽기에 이르렀다.⁶⁷⁾ 육용정 역시 『의전기술』을 저술하고 김윤식에 의해 개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인정받았을 때에는 개화 지식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었겠으나, 서울에서 벼슬을 한다 해도 기껏해야 능참봉이나 하다가 1896년 이후에는 그나마 면직된 채 궁벽한 삶을 살게 된다. 그 후 육용정은 일본에 간 아들을 기다리며 생활을 걱정하며 말년을 보내다가 시골집에 있던 아내가 죽은 후 충청도로 돌아갔다고 한다. 서양 기독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지녔고 동도와 서도를 공히 인정했으며 개화론자로서 유일하게 체계화된 저술을 남긴 그였지만 육용정 역시 불우(不遇)하였고 좌절한 지식인이었다.

유교적 이념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들을 입전한 것은 바로 이같이 좌절한 개화 지식인이 기존의 가치나 방식과는 다른 예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던 시도로 읽힌다. 육용정은 김윤식, 황현, 유인석, 전우 등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위정척사파에 속했던 유인석과 전우 등이 유교적 포범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인물전을 남긴 것과 비교해 보면 동시대 개화 지식인으로서의 육용정이 갖는 차이가 더욱 확연해진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의전문고』에 수록된 작품들은 서울에 유포되다시피 한 삶을 살면서 쓴 작품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중 연도가 기록된 작품들의 창작 연도가 1896년 이후이기 때문이다(신재홍 409). 이 문집의 간행 연도는 1912년이므로 그 외 작품들도 1896년에서 간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쓰인 작품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장르로 거론되는 것이 신소설이며 신작 구소설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소설이나 신작 구소설에도 통속적이며 조야한 취향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매체 자료인 기사문 역시 통속적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다. 정환국의 연구에 의하면, 1906년 황성신문에 연재되었

67) 이 내용은 육용정의 아버지 행장만이 아니라 어머니 행장에서도 반복 확인된다(육용정 188).

던 〈신단공안(神斷公案)〉은 조선조 송사소설의 맥을 잇는 작품인데, 여기에도 승려나 여성, 그리고 하층민의 욕망이 거침없는 표현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며, 표현 양상도 절제되지 않은, 이전의 고전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서사’라고 하였다(정한국 529-530). 유배서사로 시작하는 〈기우도(奇遇圖)〉의 창작 연대는 1920년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육용정을 논하면서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기우도〉 역시 한학에 토대한 개화 지식인 박헌용(朴憲用, 1881-1940)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문명개화와 근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기우도〉에도 치정, 살인, 겁탈, 불륜 등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⁶⁸⁾ 조심스러운 추정이기도 하나 이 같은 노골적 표현과 통속적 취향은 이 시기 서사에 나타나는 공통적 미감일 가능성이 있다. 정한국은 〈신단공안〉이 ‘뒤틀린 욕망으로 점철된, 아직 당대인들에게 체감되지 않은 근대라는 부적응의 몸과 또 다른 투쟁의 사회를 은연 중 잉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형으로 그 의의를 추정하고 있다(552).

육용정 전에는 〈청취우약상득자〉와 〈양반전〉이 녹아 있고, 〈광무자전〉의 광문자나 〈이춘풍전〉의 이춘풍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물론 육용정의 인물전은 전시대(前時代)의 한문단편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더 가까운 것은 당대의 신소설이나 신작 구조설이며, 공통적 요소가 되는 조야한 미감은 체념과 좌절 속에서도 무엇인가 시대를 포착하고 문제를 문제 삼고자 했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개화론이 무력한 것이 되고 국가가 식민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 개화 지식인에게 그는 고민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였을 수 있다. 육용정 인물전의 특징과 의미는 작품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모색하고 징후를 포착하려 했던 시도의 결과이다.

68) 〈기우도〉에 관해서는 조혜란, 「유배서사로서의 〈기우도〉 연구」, 『정신문화연구』 1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참조.

참고문헌

- 육용정. 『의전선생문집 1』. 경인문화사, 1993.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
- _____. 「허구적 형식 - 소설 속의 소설론.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116-123.
- 김수연. 「열녀전의 경계와 균열. 『한국어문학연구』55. 동국대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69-97.
- 김주현. 「1장 미와 미적인 것들의 차이.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책세상, 2009. 39-78.
- 백승중. 「〈의전기술〉을 통해서 본 육용정의 개화사상. 『동아연구』18 (1989): 41-78.
- 민회수. 「1880년대 육용정의 현실인식과 동도서기론. 『한국사론』48 서울대 국사학과 (2002): 109-168.
- 신재홍. 「의전 육용정의 허구론.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405-429.
- 정환국. 「송사소설의 전통과 〈신단공안〉. 『한문학보』23 (2010): 529-556.
- 조혜란. 「유배서사로서의 〈기우도〉 연구. 『정신문화연구』1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09-236.
- _____. 「육용정의 〈군인처모소사전〉을 읽는 한 가지 방식. 『한국문화연구』19.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2010): 33-59.
- 하지영. 「육용정의 기몽(記夢) 연작 연구. 『한국고전연구』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91-424.
- 황재문. 「의전 육용정의 문학과 현실인식. 『한문학보』22 (2010): 33-67.

Between Frustration and Grope:

Study of the Biographical Writings of Uijeon Yuk Yong-jeong

Cho, Haeran
(Kyunghee University)

Uijeon Yuk Yong-jeong is known for his *Uijeon Gisul*, the collection of writings in which he systematically developed his thoughts on enlightenment. But his literary works nowadays have also attracted notice from academic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his five biographical writings. The reason that I decided to focus attention on these works is that they are noticeable in being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other biographical writings of Chinese classics and that their aesthetic sensibility is unfamiliar and impressively strong.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meaning of Yuk Yong-jeong's biographical works in the context of narratives in his era through analyzing those five works and deriving the crucial characteristics from them. His five biographical works -- *The Life of Mo So-sa, a Soldier's Wife*, *The Life of Song So-hab*, *The Life of Gaeja, Lee Suk-ju*, *The Life of Doja, Kim Dong-gan*, and *The Life of Lee Sung-sun* -- are all about low-class people, among whom some had experienced social and economic failure. These works show a transformation of existing forms of biographical writings because they tend to only very briefly give a person's genealogy and generally not offer any conclusive judgment about the person. Moreover, many of

the episodes recounted in them presented dead drunkenness, money-oriented attitudes, homosexuality, and violence, all of which were far from Confucian virtues. Due to these elements, Yuk Yong-jeong's biographical works offer characteristics of raw rhetoric and a coarse aesthetic sensibility in an atmosphere of vulgarity. These characteristics found in his biographical works demonstrate a tendency different from his other genres, such as epitaphs and records of a deceased person's life, in which he told normative narratives conforming to Confucian values. In his biographical writings, his views on perverse and minor people whose lives did not conform to Confucian values are neither negative nor judgmental, but accepting. Yuk Yong-jeong's biographical works are found to have much in common with contemporary narrative, such as the new novel, in that there appeared a lot of low-class people and sensational episodes about sex and violence. This kind of aesthetically coarse sensibility of his work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first, it may express pessimistic views on an uncertain and unpredictable future depicted as distorted desire; second, it might result from the attempt to find an alternative way of life in society on the part of Yuk Yong-jeong, a frustrated intellectual who believed in enlightenment thinking.

주제어: 육용정(Yuk Yong-jeong), 개화 지식인(an intellect with a belief in Enlightenment), 전(傳, biographical writings), 구한말(Late Chosun dynasty), 조야미(an esthetic sense of being coarse)

논문제출일: 2011. 08. 15
심사완료일: 2011. 09. 10
게재확정일: 2011. 09. 15